통일운동 대중화 앞당기는 계기 마련

'92 범대회 서울대서 개최, 대회전 최만식 총학생회장 강제연행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2 범민족대회(이하 범대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대에서 열렸다.

당초 예정지였던 중앙대가 경찰의 대규모 화염병탄로 행사진행이 불가피해 14일 서울대로 장소를 옮겨 치러진 이번 범대회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의 결성으로 통일운동의 대중화, 조직화를 한결을 더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2만여명의 학생·시민들이 참석한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범대회 개막제에서 강희남(범민족대회 남측위원장 권한대행) 목사는 "청년학생의 굳은 결의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며 개회선언을 하였다.

통일선봉대 환영식과 전대협 통돌패의 공연을 끝으로 개막제는 막을 내렸다.

다음날인 15일 오후1시에는 통일노래한마당(이하 통노한)이 개최되었는데 이번 통노한 심사를 맡은 문효근(작곡가)씨는 "노래가 전과 다르게 밝고 경쾌해졌다"며 간단한 심사평을 하였으며 영예에 으뜸상은 '조선흐레'를 부른 전남대 풍물패에게 돌아갔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결성식에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공동결의 속에서 결성된 범청학련은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굳건히 책임질 것임을 선언했다.

범대회 개막 이틀날인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끝으로 '92 범대회는 막을 내렸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7일 오후 3시 학생회관 로비에서 범민족대회 보고및 범민족대회 기간중 중앙대에서 강제구속된 최만식(사회대·경영4) 총학생회장 석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유옥렬 하계 올림픽 동메달

여자축구팀 창단 곧 있을 듯

유옥렬(체육·2군이)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서울캠퍼스 체육부는 하계 방학중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체조부는 지난 20일부터 대구 학생체조 체육관에서 열린 '92학년도 전국대학 일반 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종합·우승, 개인종합 1, 2, 3위를 차지하였다.

수원캠퍼스체육부는 여자축구팀 창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대표 상비군인 신현정(강일여고)양등 11명이 스카우트 대상자로 확정된 여자축구팀은 관련기관의 인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김옥오로는 김태운(체과대·체육)감사가 선임됐다.

일반대학원 연구강의 지원제 실시

연구발표 계획서 15일까지 접수

일반대학원은 연구강의 지원제를 이번 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강의 지원제는 학문개발에 교수, 조교, 학생들을 공동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실시하며 지원은 학과 세미나, 논문발간 등에 요지원된다.

연구강의 지원제 재원은 전학기 정원외로 뽑은 원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과는 연구강의 계획서, 연구발표 계획서 각 1부씩을 오는 15일까지 일반대학원 교무과에 접수해야 된다.

수원, 학생식당 가격 인상

인건비등 물가인상으로 불가피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9월1일부터 제과대를 제외한 학생회관과 외국어대, 공과대 식당의 식사가격을 12.5% 인상하기로 업자측과 지난 20일 최종합의했다.

인상가격은 백반이 900원에서 9백원으로 덴뿌라 6백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1백원씩 인상되며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인복위는 인상요인으로 계속된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임금비 상승등을 들며 식사의 질 유지를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혔으며 학생처 취업복지과도 1학기때부터 계속적인 가격조정을 논의해 왔다며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가격인상은 지난학기 가격동결과 제반 물가인상으로 업자의 누적되는 적자폭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것으로 학교측의 보다 적극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인복위는 방중사업으로 교내 시설물의 설치와 보수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학생회관 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임시 가로등을 설치했고 마을 상가입구 진입로 포장및 계단 설치는 내주초 실시 예정이며 할 땍고개 계단은 전면 재보수를 추진중에 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일반요금 비해 15% 인하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추석에 귀향할 학생들을 위해 총18개 노선의 교속버스를 임시운행한다.

이번 귀향버스는 9월 9일 오전 10시 정문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귀향버스를 이용할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하고 오늘과 내일 1일 그리고 4일 중앙대자보 앞에서 예매하면 된다.

현행 고속버스 요금보다 15% 인하하여 매표할 이번 귀향버스에서는 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수원캠퍼스 인복위도 총24개의 추석귀향버스 노선을 확정하고 예매에 돌아갔다.

귀향버스는 오는 9일 12시 학교무치장에서 출발하며 인복위에서 1차로 오늘부터 29일까지 접문회, 학우회등의 단체별 접수를, 2차는 오는 4일까지 개별접수를 받는다.

수원 부총장 이·취임식 오늘 거행

신임부총장에 배태영교수, 前 김봉걸 부총장 정년퇴임

수원캠퍼스 부총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5시30분 체과대 시청각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후 교수회의가 진행된다.

신임 부총장에는 외국어대 학장인 배태영(영문과) 교수가 취임하며, 외국어대 학장 후임으로 배기열(불문과) 교수가 취임한다.

한편, 김봉걸(화학공학과) 부총장의 퇴임식이 화공과 학생회 주최로 지난 29일 롯데 호텔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봉걸 퇴임 부총장의 논문집 봉정식도 진행됐다.

김봉걸 부총장은 이후 6개월간 명예교수로서 감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9일 올림피아호텔에서 유근립 전체대학원장의 회갑기념 논문집 증정식이 있었다.

한편 교수 정년퇴임식이 지난 21일 오후2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치러졌다.

전체교수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번 정년퇴임식에서 박성봉(사학), 김영룡(의학), 전정열(외학), 박종철(화공), 김봉걸(화공)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퇴임교수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었으며 퇴임교수의 퇴임인사등이 이어졌다.

이어진 교수회의에서는 신임교수 소개와 부서별 업무보고등이 있었다.

취재노트

"정권말기적 누수현상"

◇…아이러니

드디어 고환골과 서천골이 권총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다는데.

과학사 [F학점이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나타나던 것이 학점취득시 감쪽같이 지워진다는.

항상 전쟁의 위험을 느껴 불평들에게 반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알단 권총을 찼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아이러니가 아닐런지.

◇…구름과자관매 규제??!

앞으로 심야에는 학교, 학원 주변에서 88올림픽 공식구름과자를 비롯 각종 국산, 외제 구름과자 구입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데.

부천에 이어 부산, 광주, 전안시 의회등이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번 조치가 구름과자에서 불어나오는 연기에 질식되지 않고 빛을 발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

◇…가을철 이상기온

서천골에 개강의 신선함을 시샘하게 한 이상기온이 넘쳐흐른다는데.

무덥던가 한편, 1학기때 서울 경기농성과 수업결손을 봉쇄하고 얼어붙던 함의서가 여장대로 진행되지 않음에서 온 허탈감이라고.

합의서 체결을 믿고 따랐던 불평들, 기다리던 도서관 공사 공기마저도 늦춰짐에 허탈한 심망만 더해진다고.

◇…입찰공고

담사의 권력기스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기:정권말기적 현상이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가능함.

2) 자격: • 양여 랗랗 자

•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는 원리에 철저한 자

• 높으신 분의 노후대책보장이 확실한 자

(단, 남의 이목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사절함)

*위 공고는 대선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바람.

-여러분의 민자권력안 전공사-

◇…개강이 주는 소리들

-청년 문리 학우 여러분, 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어이 반가우이.

공부면 공부, 여행이면 여행, 복학준비면 준비, 연국이면 연국, 열심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입청 보고 싶었습니다. 더욱 진근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뭘'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신 법학과 여러분 당신의 미래, 조국의 미래는 함께 갑니다.

개강과 더불어 고함골 여기저기서 사자들이 깨어나는 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은 의지의 소리들.

어떻하오 불평들? 함한 2학기가 보이지 않으오?

'92년 2학기 신임교원 13명 충원

인사위원회 발표, 해당 학과 추천·심의 후 확정

안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27일 '92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신임교원은 서울캠퍼스 3명, 수원캠퍼스 10명등 총 13명이다.

충원과정은 각 해당 학과에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총장, 양캠퍼스 부총장, 기획관리장, 교무처장등 총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원되는 학과와 신임교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화학과:박승민 ▲경영학과:신건철 ▲의학과:정경천

【수원캠퍼스】▲중문과:진관진 ▲무역학과:이상규 ▲화학과:안광현 ▲수학과:김병학 ▲건축공학과:은영태 ▲전파공학과:김영수 ▲조경학과:김동찬 ▲산업디자인학과:장미경 ▲도예과:장 진

서울, 연구비 지원금 지급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90학년도 2학기 개강과 함께 각종 학술지원의 연구비지원금을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였다.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해당자 김기영(국문) 교수외 11명에게 1억3천1백30만원, 신하영 등재단의 김형석(의학) 교수외 3명에게 학술연구비 1차분 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90년도 국비해외 파견 연구자로 홍상현(영어교육), 최화환(자연대, 수학), 최병일(서반아) 교수가 선정되었다.

朔風

"권력의 망령은 곧 독재"

'역사는 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적어도 언론사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이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역사는 발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공휴일 밤에 일어난다'는 것이 체험을 통한 뼈맺힌 경구로 되뇌어지고 있다.

한·중수교의 첫 속보에서 그랬다. 대북방 통신기사로 한·중수교 소식이 우리 언론사로 전해진 것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가 가까운 시간.

뉴스의 골자는 대만 외교부장 錢復이 입법원(외회) 외원 20여명에게 한국과 중국이 곧 수교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었다.

함께 한국이 중국에 2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통신뉴스를 접한 각 언론사는 서둘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한·중 양국의 수교가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대북방 통신뉴스를 그대로 전재하기엔 일의 비중이 너무 무거웠고 대만이 브리핑을 할 정도면 우리 정부측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믿어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밤중 전화로 불러낸 남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아닌 밤중에 뚱딴지 같는 반문이었고 외무부의 대변인조차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

해서 한·중수교의 첫 뉴스는 당사국인 한국에서 대북방 기사로 보도됐다.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됐던 20일에도 우리 정부에선 이렇다할 공식논평이 없었다.

단지 '소식통'이란 것을 통해 '수교유지임이 있고 李외무가 23일 북경으로 간다'고만 밝혔다.

우리 정부의 수교사실 공식확인은 대만발 정보도가 나간지 이틀이나 지나서인 21일에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대북방 보도가 타파된 19일 일본의 츠리실이나 외무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보채널이 입수한 정보 그대로를 제공해 '한중 수교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혀주었다.

요란스럽게 이어지는 한국 수교와 이에 관련된 보도의 홍수를 지켜보며 이따금씩 정부는 아직도 언론을 '통제시대의 전유물'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쾌감을 떠올리곤 한다.

한때 우리는 국내외 민감한 사안을 미군방송이 AFKN의 뉴스를 통해서야 알 수 있었던 갈등한 시대를 살아온 적이 있었다.

광주의 현장을 남의 나라 TV로 지켜보고 정치인의 오랜 단식 역시 남의 신문으로 읽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이제 위성을 쏘아올리고 이동통신을 준비한다는 선진 대한민국의 정부당국자들에게 혹 가림 것은 가리고 보일 것만 보이겠다는 구시대적 정보독점주의의 발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독재와 권력 전환시대의 망령이 오늘 그들의 사고속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少年〉

우리밀살리기운동

밀가루는 수입할 수 있어도
밀밭은 수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밀농사가 3천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 빵, 국수, 햄버거 따위의 원료가 100% 수입 밀가루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밀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 벌어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더러 있습니다만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우리 먹을 거리를 우리 땅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지 모를 세계적인 식량파동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올 수 있어도 하버드 대학교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고려당

고려당은 오직한번 우리밀보다 더욱 맛있고 영양 만점 빵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량·무조건, 무첨가스타일, 무설탕, 무화학조미료, 무표백! 이 5가지를 철저합니다.

■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로! 고려당 영업기획과로 문의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02)945-1236~8 ● 고려당 영업기획과 (02)571-6936~7